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에 있어서의 해체주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construction Theory in the Communication Design

홍동식

동명정보대학교 정보조형학부 컴퓨터그래픽학과

Hong, Dong-Sik

Dept. of Art & Design, Computer Graphic Major,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 Key words: Deconstruction, Postmodern, Transgression

1. 서론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있어서의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약물이나 술에 대한 갈망을 자초하는 증독자처럼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강력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열망을 개발한다. 이는 오늘날 탈 획일화,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순수예술지향주의를 지향하는 디자인 경향 중의 하나이다. 이에 해체주의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새로움을 갈망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어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하는 디자인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해체주의(deconstruction) 경향은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급속도로 파급되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여러 부분 즉 그래픽디자인, 웹 사이트 디자인, 영상, 영화에서의 타이포그래피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체주의적 디자인들을 살펴보면 표현방법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거나 디자인표현의 진원지와 분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에 있어서의 해체주의 이론과 표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해체주의 디자인 이론

1988년 뉴욕 근대 미술관에서 전시된 '해체주의 건축'과 런던 데이트 갤러리에서 있었던 해체파 미술가의 세미나를 통해 처음 표명된 해체주의는 프랑스 작가 자크 데리다의 문학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고정된 사고나 사회적 인식에 반하는 견해에 대해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대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서 미학에 대한 재정의의 요구하고 있다. 해체주의의 특징은 분해 되었다가 비논리적이거나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재조립되는 듯한 요소를 강조한다.

2-1. 해체주의의 개념

해체주의의 작품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대중적 공식에 맞추려는 모든 디자인에 대한 도전이다. 해체주의의 혼란스러운 방식은 일단 대중에게 인식되고, 비평의 주제가 되고 나면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어 더 많은 관심과 더 넓은 수용을 부추긴다. 해체주의의 형태는 기존 모더니즘의 통합성이나 규범을 이탈하고 새로운 긴장감을 주는 형태를 추구하는데 그 결과 파괴적이고 미완성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디자인 요소들은 통일된 전체로 구성되는 대신 해체되고 전체에서 분리되어 대개 날카롭게 각지고, 중복되며 상호 침투하는 성격을 띤다. 디자인에 있어서의 해체주의를 살펴보면 건축, 패션 디자인, 산업 디자인, 광고, 그래픽 디자인 등에서도 두드러진 표현들이 나타난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건물에 불완벽성과 주관성을 부여하였고, 장 폴 고티에의 안과 밖 또는 속옷과 겉옷의 구별이 없는 패션 디자인들이 등장 하였으며, 베네통과 같은 광고의 지시 대상인 상품적 메시지를 부재(不在)시키는 표현방식이 등장하게 되어 광고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해체이론을 디자인에 적용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1]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내적 의미

해체이론	디자인의 적용	디자인의 특징
탈현상 -탈구성(Decomposition) -탈중력적(Decentring) -불연속적(Discontinuity) -이집적(Disjunction)	탈중심	디자인 원리의 해체, 그리드의 파괴, 수직과 수평의 거부
	전위	위치 전환을 통한 고정관념 해체
	탈구성	문자의 가독성저하, 전통 타이포그래피의 파괴
	무질서	형태, 색상, 크기 등의 미적 원리의 해체
역사성의 부정	과거와 현재의 분리	철저히 탈모더니즘의 범주에 포함
사이-텍스트(Inter-Text)의 형성	음성언어(Logos)의 대두	전통 타이포그래피의 부정 시간성, 목적성의 혼재

2-2. 해체주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해체주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조형개념의 표현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2-2-1. 탈구성적 표현(Decomposition)

탈구성이라는 용어는 철학적 분해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이것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해서 분석하고 어떤 구조적인 범주 안에 이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분석도구이며, 조작 가능한 오브제의 참조과정이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특정한 자세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관계가 무작위 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무작위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 즉, 질서라고 알려진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제작과정은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나 단순한 변형의 영역을 초월한 무의식적 설계가 변형만을 통해 전개될 수 있는 이미지의 질서, 근원을 탐구하는 것으로 탈중심은 전통적인 디자인의 제작과정의 역을 취한다.

2-2-2. 탈중력적 표현(Decentring)

해체주의 디자인에서는 수평과 수평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깨고 경사진 면과 기울어진 수평선 등을 자주 등장시킨다. 이것은 디자인의 기본 전제였던 그리드라는 고정적인 규범에 대한 반발적 표현이며 열린 사고의 반영이다.

수직, 수평으로 부터의 탈피는 중력작용의 왜곡을 위해 그래픽디자인의 기본구성요소인 수직선과 수평선의 방향성과 대칭 형태 등을 왜곡하여 기존의 중력에 순응하는 형태, 공간 경험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수직과 수평은 중력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표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질서로 작용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탈피는 중력의 작용방향을 왜곡함으로써 표현되는 그 결과로 기존의 경험과 예측으로부터 벗어난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2-2-3. 불연속적 표현(Discontinuity)

혼합, 중첩, 왜곡, 삽입, 우연의 구성을 통해 연속성을 해체한다는 뜻이다. 그래픽디자인에서의 연속성이란 두 가지의 관계

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내적인 관련성으로 이는 실제적인 공간의 병렬을 다루는 유형학적이며 형태학적인 선행 디자인과의 공간적 연속성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에 대해 사회적이거나 실용적인 요구를 집약하고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대중성 사이의 연속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2-4. 이접적 표현(Disjunction)

이접(Disjunction)은 분리, 분열의 상태를 말한다. 이 개념은 극한(Limit)과 방해의 아이디어로서 디자이너가 어떤 부분들을 종합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문화적 조건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디자인의 전통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적 견해와 움직임 등과 충돌함으로써 단지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분열을 만들어내는 영속적이고 기계적인 작용을 내포한다.

3.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

해체주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도 다양하고 다소 파격적인 레이아웃으로 등장한다. 인쇄매체에서 해체주의적 디자인이 도입된 것은 1969년 처음 출판된 <모던 타이포그래피의 개척자들(Pioneers of Modern Typography)>이 1982년에 다시 출판되고, <해방된 페이지(The Liberated Page)>가 1987년에 출판되면서부터였다. 이 두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20세기 초 혁신주의자-다다이스트, 미래주의자, 데 스틸의 예술가, 구성주의자 등의 작품을 실질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이후에는 극단적으로 전통적인 그리드와 타이포그래피의 조화를 무너뜨리며 실험적인 성향으로 대두된다.

3-1. 해체주의적 표현 유형

60년대의 격동기로부터 포스트모던의 급진적 파도를 타며 디자인분야에서는 반전쟁, 여권신장, 성해방, 정치적 이슈,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디자인들이 탄생되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한 강하게 나타나며 인간의 감성과 직관을 강하게 자극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모습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인쇄매체와 멀티미디어디자인 그리고 영상디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픽디자인은 맥킨토시 컴퓨터가 디자인에 있어 하나의 도구적 소양을 갖추며 디지털 타입과 함께 급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해체주의적 디자인의 선구자는 미국 크랜브룩 디자인학풍의 영향을 받은 에드워드 펠라를 꼽을 수 있다. 펠라의 작품은 마치 부러진 펜촉으로 쓴 듯이 잡아 늘러지고 기울어지며 잘리고 부수어진 모습으로 비주얼 언어와 디자인 속에 구체화 되어있는 여러 층의 의미들을 해체하거나 분리,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후 디지털적인 요소의 표현(중첩, 블러 효과, 왜곡, 자르기 등)들이 손쉬워지며 유럽에서는 급진적 표현의 디자인회사인 와이낫 어소시에츠(Why Not Associates)는 자유분방한 타이포그래피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들을 흥분시켰다. 또 다른 모습은 영국의 네빌 브로드(Neville Brody), 미국의 데이빗 카슨(David Cason)은 각각 The Graphic Language of Neville Brody, The End of Print를 출판시켜 최고의 해체주의의 디자인표현을 독자들에게 확인 시켰다.

-웹사이트 디자인은 임프라의 구축과 스크립트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이트의 제작이 더욱 용이하며 웹디자인의 표현 또한 그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시각적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Flash deCONSTRUCTION>의 저자인 토드 퍼거슨(William Todd Purgason)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현재 Juxt Interactive라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스튜디오의 Creative Director로 있으면서 Billabong, Macromedia, Toshiba, Fujitsu 등 우수 클라이언트들의 세련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해체주의적 웹사이트의 미적인 컨셉트 추출은 창조성이 우리의 일과 생활에 주는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인터랙티브하게 이해하려는 접근에 근원을 두며 창조성은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너무나 심오하게 얽혀있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그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없다. 창조성은 유기적, 유동적이며 동시에 신비스러우며 그 형태를 알 수 없으며 주어진 환경과 사람에게 매우 역동적이며 폭발적 형태로 반응한다. 창조성은 그 자체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 생명력을 이용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라고 추창하는 해체주의적 웹 디자이너이다.

3-2. 해체주의적 표현 방법

해체주의적 디자인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 수직과 수평구조를 중요시 여기는 전통적인 그리드를 부정하며 문자의 가독성 또한 무시한 도전과 혁신이 중심이 되며 음성언어(Logos)가 대두되는 실험의 모습이 팽배하게 된다. 그 표현방법들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반 유티미주의(Anti-Aesthetic)의 탐미는 디자인에 있어서 내용과는 무관한 낙서와 같은 흥미 본위의 요소들이 등장하여 흥미(fun)만을 표현하며 무게 중심이 느껴지지 않는 특색이다.

-왜곡(Distortion)은 디지털로 인한 표현의 대표적 부산물로 디자이너의 새로운 지각탐구와 표현영역의 확대를 선호하는 표현방법중의 하나이다.

-커팅 엣지(Cutting-Edge), 블러 효과(Bluer Effect)는 디자인의 표현에 따른 전통성에 대한 강한 부정과 윤곽의 해체로 새로운 실험성을 제시하였다.

-하급문화(Kitsch)의 우대는 일반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소재들의 선택으로 실용성을 주창하는 모더니스트들에게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현사회의 문화 실상을 표현하는데 주력한다.

-신고전주의적(Neo-Classicism) 향수의 동경으로 일반인들에게 고향의 향수와 정취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로 인한 동정심 유발로 상업적 입장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4. 결론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을 요구하는 것은 정통적인 그리드 표현에 따른 디자인에 너무나도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너무 자주 눈에 띄는 디자인표현은 빨리 효력을 상실하며 새로운 표현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디자인 작품의 상당수는 단순한 미학을 넘어 디자인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생산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관습으로까지 발전시켜줄 분석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해체주의는 이에 등장한 또 다른 급진적 표현의 하나로 반지성적 변화의 근원과 이미지 창출을 이해하고 몰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 원유홍, 타이포그래피의 풍토적 경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42호, Vol 14, 2001.5
- Cathy Fishel '모더니즘으로의 회귀-미국 타이포그래피의 디자인의 동향, 월간 디자인 넷 1998.10, p45-59
- Steven Heller, 왜 디자이너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1, 도서출판 정글, 1997
- Christopher Norris, What is Deconstruction?, 도서출판 청람 1996
- Edward Fella, Letters on America, London, Laurence King, 2000
- Steven Heller, Looking Closer II, Allworth Press, 1998